



본교 '자율개선대학' 선정 위기를 넘어 도약으로

지난 8월 23일,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주기 평가)' 결과 우리학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2주기 평가는 지난 2015년 시행됐던 '대학구조개혁방안(이하 1주기 평가)'에 이은 후속 평가다. 우리대학은 1주기 평가 당시 '재정지원제한 대상인 D+등급'을 받으면서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로 인해 ▲2016 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제한 ▲전체 정원 중 10% 감축 ▲신규 재정지원사업 참가 자격 박탈 등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지난해 중간점검차 실시된 1주기 평가 이행점검에서 우리학교는 '재정지원제한 완전해제' 판정을 받으며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털어냈다. 교육부 컨설팅을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다.

이후 올해 2주기 평가 결과 자율

개선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우리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일반재정지원 수혜를 누리게 된다. 정원 감축 권고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등 별도의 제약도 따르지 않는다. 만약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면 ▲일반재정지원 제한 ▲정원 감축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등 다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었다.

노광현 기획처장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우리대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서울 소재 중급대학 중 최고 대학을 목표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부로부터 사업 비용으로 연간 30~90억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정미영(전략평가팀) 팀장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수립된 혁신 과제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지면안내

보도

'후다닥' 통합된 학과 사무실, 학생들 혼란 우려

02

사회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 그 실태는?

03



문화

사는(living) 방식이 사는(buying) 방식으로

04



사람사

넉넉한 마음이 든든한 한 끼로 '십시일밥' 최문영 대표

05

학술

찌기가 된 대기, 찌미 되는 지구

06

오피니언

의화정, 낙산에 올라 등

07

기획

플라스틱 라이프 OFF 판타스틱 라이프 ON

08

기자사령

임 편집국장 강예림(사회과학 2)
정 기자 이가연(인문 1)
정명아(인문 2)
정수민(인문 1)
장선아(사회과학 2)
심상우(IT 1)
면 편집국장 이주형(국문 3)

'미래플러스대학' 신설, 2019학년도부터 모집

[2-1-1] 한성대학교 학칙

개정 사유 :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2019학년도 단과대학, 학과 신설 및 정원 조정

개정 전

제 2 조 (편제) 본 대학교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상상력교양교육원, 상상력인재학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둔다.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모집단위	정원	
	주간	야간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상상력인재학부	240	98
합계	958	500

개정 후

제 2 조 (편제) 본 대학교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미래플러스대학, 상상력교양교육원, 상상력인재학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둔다.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모집단위	정원	
	주간	야간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미래플러스대학		
법·행정학과	3	3
호텔의식경영학과	2	2
뷰티디자인학과	2	2
비즈니스컨설팅학과	3	3
상상력인재학부	240	88
합계	958	500

▲이번에 변경된 학칙 개정안의 일부

재직자 전형으로 모집할 수 있었던 인문 80명에 상상력인재학부 야간 정원에서 가져온 10명을 더해 9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노 처장은 "상상력인재학부는 우선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후 적성에

따라 트랙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문 변동이 잦다. 그래서 타 단과대학에 비해 정원 조정이 용이한 편이다. 특히, 재직자는 본업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간 강의를 듣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고려해 야간

학생 수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플러스대학은 ▲법·행정학과 ▲호텔의식경영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비즈니스컨설팅학과, 총 4개 학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지대학교 등에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과 신설 시 많은 고민을 했다"며 "현재 우리대학 및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연관이 있으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4개 학과를 선정한 것"이라고 학과 구성 배경을 밝혔다.

또한, 노 처장은 "미래플러스대학은 재직자를 위해 운영하는 과정인 만큼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을 돕는 강의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2019학년도에는 4개 학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학과 수를 늘려갈 것"이라고 추후 향방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래플러스대학에서 운영하는 실무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Micro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나갈 테니 관심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지난 8월 2일, 학교 홈페이지에 학칙 개정안이 공표됐다. 이번 개정은 우리학교가 교육부 주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평생교육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이루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우리학교는 '미래플러스대학'을 신설하고, 상상력인재학부 야간 정원을 10명 감축해 이를 '미래플러스대학' 정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노광현 기획처장은 이번 평생교육 사업에 대해 "일반 학부생보다 재직자 학부생을 위한 것이다. 사회에 진출해 재직하더라도 직업을 변경하는 경우는 많다. 새로운 업무를 하려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대다수가 학원이나 유료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대학에서 교육하도록 교육부가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우리학교는 그동안 '재직자 전형'의 형태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재직자 전형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미래플러스대학이 신설되면 재직자 전형 운영에 박차가 가해질 예정이다. 2019학년도에는 기존에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후다닥’ 통합된 학과 사무실, 학생들 혼란 우려



▲지난 8월 28일, 이전 작업이 한창인 진리관 4층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학실

학생장학팀은 지난 8월 23일 학교 홈페이지에 학과 사무실 통합에 관한 공지를 게재했다. 기존에 학과별로 산재했던 행정사무실을 이번 학기부터 단과대별 행정사무실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대학본부는 각각의 사무실 통합 작업을 8월 27일·28일, 8월 30일·3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27일·28일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상상력 인재학부 및 상상력 교양교육원 교학실이 진리관 4층에 마련됐다. 또한, 30일·31일에는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교학실이 각각 창의관 5층과 지식관 1층에 꾸려졌다.

대학본부는 학사구조가 트랙제로 변경됐으므로 사무실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윤철(경영

기획팀) 팀장은 “트랙 신설·폐지·변경·통합이 잦은 현행 학사구조상, 트랙 간 업무 조정 및 인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본래 트랙별로 행정사무실을 증설해야 하지만, 우리학교에 마땅한 공간이 없고 건물을 증축할 재정이 마련되지 않아 학과 사무실 통합을 추진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소식을 접한 일부 학생들은 조교 및 근로장학생 인원 감축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 페이스북 ‘한성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익명의 제보자가 “사무실 통합 후에는 근로장학생 수를 줄인다고 들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순선(총무인사팀) 차장은

“이번 학기에는 조교 및 근로장학생 인원 감축 계획이 없지만, 향후 인력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공지가 늦게 된 점도 문제를 지목되고 있다. 송진기(기계 4) 총학생회장은 지난 8월 24일 열린 정기 학생 간담회에서 “대학본부가 행정사무실 통합에 대해 제때 공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사무실 통합은 트랙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는데, 세부 계획이 최근에서야 확정됐다. 그로 인해 공지가 늦어진 것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답했다.

한편, 학과 행정사무실 통합으로 2차 수강 정정기간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행정사무실 통합 이전에도 정정기간이 되면 서면신청하는 학생들로 학과 행정사무실이 붐볐는데, 행정사무실이 단과대별로 통합되면 더 많은 인원이 단과대 교학실로 몰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김성자(학사지원팀) 팀장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 필수 과목 서면신청은 학사지원팀 사무실이 좁아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대기 장소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일반 재학생의 서면신청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 교학실에서 대기 공간을 요청할 경우 학사지원팀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한성 #타임라인

‘Micro College’ 프로그램 확대 시행

학사지원팀이 이번 학기부터 ‘Micro College’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Micro College는 3, 4학년대를 대상으로 실무 기술과 지식을 집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모든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21학점을 취득하고 이수한 분야를 부전공으로 인정받는다.

지난 학기에는 2학기까지 운영되는 ▲CRM·디지털 마케팅 ▲지식재산&벤처창업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 코업 등 3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번 학기에는 내년 1학기까지 운영될 예정인 ▲날씨경영 ▲VR/AR ▲인공지능응용 ▲프랜차이즈 등 4개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지난달 14일에 모집을 마감했다. 단, 이번에는 최소 모집 인원이 미달돼 ‘프랜차이즈’ 프로그램만 정상 운영된다.

김성자(학사지원팀) 팀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신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CRM·디지털 마케팅 ▲지식재산&벤처창업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 코업 프로그램은 매년 겨울, ▲날씨경영 ▲VR/AR ▲인공지능응용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은 매년 여름에 모집한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8월 17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후기 학위수여식은 전기 학위수여식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 나누어 열렸다. 학부 졸업생과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졸업생은 오전 11시, 대학원 졸업생은 오후 2시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 보고, 학위증서 및 상장 수여, 이사장 축사, 총장 격려사, 동문회장 축사, 교가 제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학사 419명, 석사 106명, 박사 9명,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79명, 총 613명이 이날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성적우수상과 공로상 시상도 이루어졌다. 학부에서는 ▲성적우수상 20명 ▲학과 추천 공로 대상자 31명 ▲특별 공로상 11명 ▲동문회장상 1명 ▲기업은행장상 1명, 총 64명이 수상했다. 대학원에서는 ▲최우수논문상 8명 ▲성적우수상 13명 ▲공로상 18명 ▲대학원 총동문회장상 2명, 총 41명이 상을 받았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에서는 ▲학사학위과정 성적최우수상 1명 ▲학사학위과정 공로상 1명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날 학위를 받은 박혜빈(역사 4) 졸업생은 “학교에 다니며 강의를 듣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모든 졸업생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교내 거동수상자 발생... 맞서는 캠퍼스 순찰대

지난 7월 31일 오후 2시경, 교내에서 2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학생 2명을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선관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캠퍼스 대원이 남성을 추적했으나, 끝내 남성을 잡지는 못했다. 이에 최전근 학생처장은 학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와 학내 비상연락망 등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최근 교내 수상한 남성이 돌아다니는 신고가 몇 차례 들어왔다”고 밝혔다. CCTV 확인 결과, 남성은 지나가는 사람이 이유 없이 쳐다보거나, 본교 건물을 배회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며, 방중 교직원 출근시간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주로 출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 팀장은 “이전에 신고 받은 사건들과 이번 사건 모두 동일인의 소행으로 판정됐다.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 남성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라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경찰에 알리고 지속적인 순찰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나경(패션 2) 학생은 “한성여고 학생, 지역주민 등이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 아무래도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지면 범죄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니, 학교와 학생 모두 이를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인터뷰에 응한 여러 예술대학 학생들은 “지선관은 24시간 개방돼 있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학교생활이 무섭고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박성우(전자 4) 총대의장은 “우리학교는 주거공간과 밀접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안 유지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대의원회와 학생복지위원회가 캠퍼스 순찰대를 구성해 월 1회에서 2회, 성북경찰서 및 경찰 지구대와 함께 교내와 학교 인근 치안 취약지구를 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4일, 캠퍼스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성북경찰서와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이다.

박 의장은 “우리학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주간 학과와 비슷한 규모의 야간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외진 골목이 많아, 특히 밤중에는 더욱 위험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순찰할 계획”이라며 “야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남다솔(전자 3) 학생은 “과 특성상 밤늦게까지 학교에 잔류하는 경우가 많고, 밤을 새울 때도 종종 있다”며 “이번 기회에 순찰이 강화돼 학생들의 신변이 보호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우촌관 북측면 외벽 환경개선 공사 실시

지난 8월 7일, 시설지원팀이 우촌관 북측면 외벽 환경개선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는 오는 9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종석(시설지원팀) 팀원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우리대학 중문 사진이 외부인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곤 했다.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이번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착공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사가 끝나면 우촌관 외형은 크게 달라질 예정이다. 기존 외벽 위에 ‘루버(Louver, 폭이 좁은 판을 일정 간격을 두고 수평이나 수직으로 배열한 것) 형식의 가벽을 덧대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버 형식을 적용하면 채광과 통풍, 단열이 잘 돼 완공되면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박 팀원은 “다른 학교에 적용된 루버 예시들을 참고해 우리학교에 적합한 간격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한 안전 조치로서 공사 기간 동안 ▲주차장 진입로 ▲우체국 앞 통행로 ▲우촌관 북측 보행로 ▲우촌관 4·5층 외부 테라스 등의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박 팀원은 “우촌관이 완공된 1986년 이후로 30여 년 만에 하는 공사다. 창의관을 리모델링한 이후에 부정적이었던 정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이번 공사 역시 중문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동정란

강상욱(기계전자공학부) 교수
강 교수는 지난 6월 2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한 ‘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 그 실태는?

“종이컵은 일회용 컵 아니래요” 규제 피하기 위한 꼼수 만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일회용품을 사용할까?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연간 약 260억 개다. 어제 하루 동안 약 7,000만 개의 일회용 컵이 소비됐고, 오늘도 똑같은 양이 쓰여진다는 뜻이다. 일회용품은 세척과 같은 번거로운 과정 없이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는 생활용품이 됐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부터 환경 관련 기관의 골칫거리가 됐다.

지난 8월,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무분별한 사용을 개선하고자 ‘일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다. 해당 법안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품 규제 시행 이후, 일부 매장에서는 설거지 문제, 고객의 불만, 모호한 일회용품 기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김지숙(44) 씨는 “본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는데, 얼마 전 매장 내에서 사용할 머그잔과 유리잔을 추가로 구입했다”며 “물건 가격도 문제지만 넘쳐나는 설거지를 감당하기 힘들어 더 문제다. 고객 회전을 높려면 컵을 미리 여러 개씩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설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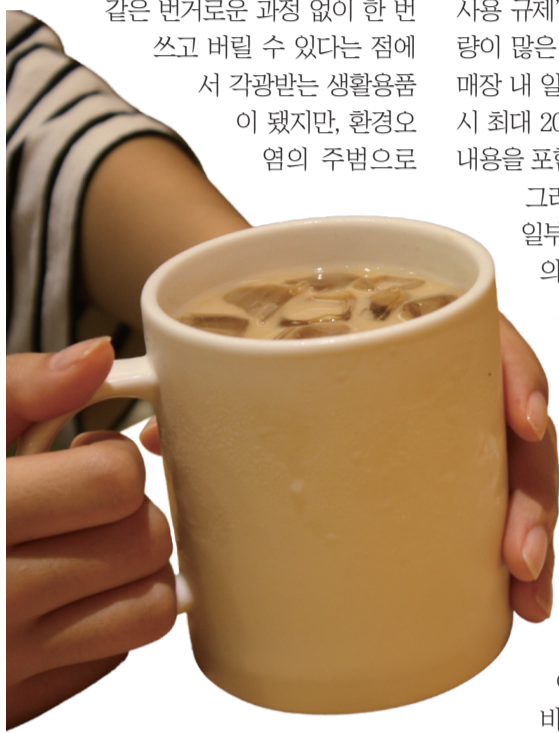
담당 직원을 고용하려니 인건비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르바이트생도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다. 주문받을 때 일회용 컵 사용 의사를 물어봤는지에 따라 단속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원의 권유에도 고객이 일회용 컵을 요구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식이다.

지난달까지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가 권고사항이었으나, 달이 바뀌자마자 의무화로 변경돼 직원과 고객이 혼란을 빚기도 했다.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윤진(숭의여대 1) 학생은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가는 손님에게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유리잔, 머그잔에 음료를 담아 제공한다”며 “규제가 하루아침에 바뀌다 보니 손님에게 일회용 컵 지급이 안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힘들다. 충분히 설명해도 무작정 일회용 컵을 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어 곤란할 때도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일부 고객은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의문을 갖기도 했다. 환경을 보호하고자 실시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주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신다는 이정은(26) 씨는 “환경보호를 위해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다는 포스터를 봤다. 그런데 차가운 음료를 주문하면 다회용 플라스틱 컵에 일회용 뚜껑을 덮고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



▲커피전문점에 게시된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한 안내문

주더라”며 “뚜껑과 빨대도 일회용품인데, 이런 식이면 환경에 도움이 될까 의심스럽다”고 말을 보탰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일회용 컵 단속 목록에서 플라스틱 뚜껑과 빨대, 종이컵 등은 찾아볼 수 없다. 현행법상으로 플라스틱 컵은 ‘일회용’으로 규정되지만, 뚜껑을 비롯한 다른 품목은 ‘일회용’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컵만 규제한다는 점을 이용해 코팅된 종이컵을 사용하는 매장에 생겨나고 있다. 종이컵은 안쪽 면이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돼 있어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해도 재활용을 할 수 없다.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종이컵에 플라스틱 뚜껑을 덮어 사용하고 있으니, 일회용품 사용량을 규제하는 것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의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일회용품 남용을 막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환경부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안을 실행한 탓에, 여러 허점이 드러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금.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 기준을 보완해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난 7월 31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바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출시한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중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5% 높은 금리(최대 3.3%)를 적용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통해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청년 우대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가입 조건 중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부분이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뜻한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조사 결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은 2016년 기준 59.9%로 전체 청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6명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입 조건 때문에 다수의 청년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복수의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 가입 조건을 없애달라’거나 ‘가입 대상을 청년의 독립 여부에 결정하지 말고 부모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가령, 부모의 경제력에 힘입어 독립한 청년은 독립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반면에 부모의 경제력 부족으로 독립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독립하지 못한 청년도 있다.

이 상황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이 더 절실한 쪽은 후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예당초 출시 목적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청년들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입 조건 개정에 대해 “상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 조건을 수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동향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입 이후 서류심사 세부 지침이 은행 가맹점까지 전달되지 않아, 가입 시 편법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입 시점에만 서류 심사를 한다는 점을 악용해 고시원이 아닌 작은 원룸에 단기 계약하고 주소를 이전하는 등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사무관은 “가입자가 소득공제나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청하면 국토부와 국세청이 가입자격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가입 이후 서류심사에 이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그는 “청약저축은 해지 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가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가입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편법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 제공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명아 기자
mhbttd0330@naver.com



드디어 터진 사법부의 종양 ‘사법농단’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당시 작성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사법부가 동료 법관, 법원 내 소모임을 사찰하고 정부와 ‘재판거래’한 정황이 적혀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국제인권위원회, 다음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등 판사 커뮤니티를 뒷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와해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평소 사법부 체제에 비판적인 법관들도 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KTX 해고 노동자 사건’과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정황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 사태가 야기됐다고 분석했다. 상고법원 이란,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건 중 중요성이 덜한 것들을 심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가 법관들 사이의 승진 경쟁을 촉진해 법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상고법원 법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법관들이 이전보다 더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도록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법원으로부터 전 정부 당시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가 생활했던 자택,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조치였다.

이 같은 법원의 미진한 태도에 대해 정치권은 크게 반발했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적폐를 감싸는 법원의 태도가 지속되면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압박했다.

지난 8월 14일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의원 56명이 사법농단 사태 당사자를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사자를 재판할 특별재판부와 이들의 영장을 심사할 특별영장담당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며, 8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시국회의’를 구성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8월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순일 대법관 등 전 정부 당시 임명된 대법관들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윤희승 기자
yooning@gmail.com



사들(living) 방식이 사들(buying) 방식으로

학점 관리 하라, 스펙 쌓으라, 아르바이트 하라... 삶에 지칠 대로 지친 대학생 장씨는 저녁 식사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일과를 마쳤다. 늘 그래왔는데 오늘따라 더 지치는 것은 기본 탓일까. 누군가 옆에서 힘이 돼 줬으면 싶지만, 친구에게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기도 망설여진다. 다들 자신의 일만으로도 바빠다니는 걸 알기 때문이다. 장씨가 발걸음을 돌린 곳은 다름 아닌 서점. 작년에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를 읽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낸 뒤로, 그녀는 독서를 더욱 특별히 생각하게 됐다.

서점을 둘러보면 그녀는 서점 풍경이 작년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년 내내 '올로(YOLO)'를 권하던 책들은 온데간데없었고, 대신 불편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이 빈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예쁜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책도 있었다. 한쪽에는 SNS 작가들의 책을 모아놓은 진열장도 마련돼 있었다.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곳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다룬 책들이 한가득 놓여있기도 했다. 베스트셀러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호가 반영되기 마련인데, 올해에는 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일까?

신임을 소비하다

먼저, 2018년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주요 서점 네 곳에서 종합 1, 2위를 다투고 있는



책은 '상처받은 일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내용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과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그린 '82년생 김지영'이다. 을(乙)들의 목소리가 도서관에 퍼진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재벌총수 일가의 일명 '갑(甲)질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1월 말에는 서지현 검사를 선두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전개됐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소비, 일명 '미닝아웃(Meaning out)' 현상이 서점가까지 확산됐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책을 읽느냐가 '나'를 정의하는 세상. 이제 소비는 투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가 됐다.

여심을 자극하다

여심을 사로잡은 도서들도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점령했다. 그중에는 캐릭터를 활용해 교보문고 상반기 베스트셀러 종합 4위에 안착한 책도 있다. 바로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다. 이 도서는 '곰돌이 푸' 캐릭터로 여성 독자들을 대거 유입했다. 베스트셀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정(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담당자는 이 책의 구매자 중 78.1%가 여성이라고 말했다.

잇을 만나면 소장욕구를 자극하는 예쁜 표지로 재출간해 여심을 잡은 책도 있다. 김 담당자는 "도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는 기존에도 베스트셀러 30위권 내에서 오르내리던 책이지만, 리커버 에디션이 출간하면서 단숨에 상위권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른바 '매력자본'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상품 포화 시장에서 선택장애에 걸린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매력'이 필수적이다. '키카오톡 이모티콘'이 이미 여러 개 있지만, 매력적인 신상이 모티콘이 나올 때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결제하는 본인의 모습을 생각해볼라. 귀엽고 예쁜 책을 나도 모르게 집어 드는 것도 바로 이 '매력'이 이끌려서다.

SNS, 열개를 팔다

SNS는 문화 전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여성 저격 캐릭터를 활용한 베스트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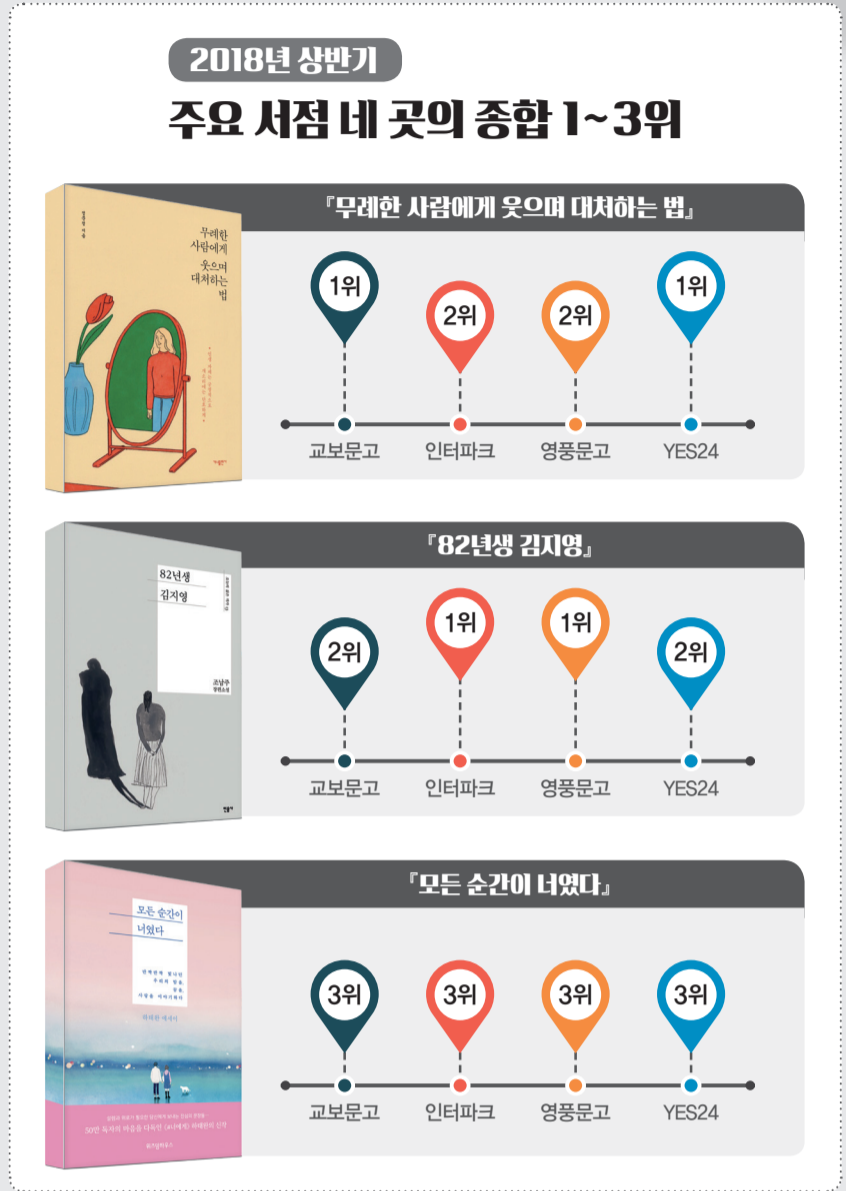
발휘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올 상반기에는 'SNS 작가'들이 SNS에 짧은 글을 올리고, 이를 엮어 발간한 책이 인기를 얻었다. 20~30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이 주요 SNS 채널로 각광받으면서 감성적인 사진과 글이 어우러진 콘텐츠가 인기를 끈 것이다.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하태완, 김지훈, 혼글 등이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특히, 에세이 분야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는 주요 서점 네 곳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SNS 문화가 유행하자, 일각에서는 가벼운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며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SNS가 없었으면 이러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리 없고, 시집이 주목을 받을 리도 없다. SNS는 오히려 독자를 유입해 쇠퇴하던 도서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를 리치다

'퇴사하고 떠나라'는 식의 강경책을 제시하던 책들이 인기를 끌었던 것과 달리, 올 상반기에는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들이 주목을 받았다. 자존감을 높이는 삶의 방식을 담고 있는 책들이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는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기 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괜찮다며 독자를 위로한다.

한편,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간 사람들은 '진짜 나'를 지키는 법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 책은 타인과의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으며, 주요 서점 두 곳에서 종합 4위에 올랐다.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그만큼 한국사회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다. 개인이 원자화된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닌 '나'의 감정이기며, '인간관계에 적절한 거리두기', '나에 집중하기' 트렌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별 고민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책을 집어 들었던 장 씨는 변화한 트렌드를 접하고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기호가 사회 트렌드에 반영된다니, 놀랍지 않은가? 그래서 장 씨는 결심했다. 이리저리 흘러가는 트렌드 속에서 문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적극적으로 소비할 것이라고. 당신도 장 씨처럼 당신의 취향과 생각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다면, 그리고 거대한 트렌드 조성에 동참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서점으로 향해보자. 트렌드세터(Trend setter)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장선아 기자

sun0913@hansung.ac.kr



20XX년 00월 △△일 날씨 : 맛있음

우리는 종종 다양한 감각으로 날씨를 느끼고 그것을 표현한다. 그날의 기온을 피부로 느끼고, 맑은 하늘과 먹구름 낀 하늘을 눈으로 확인한다. 불어오는 바람 냄새를 맡고, 비오는 날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맛'으로 날씨를 표현하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다. 날씨를 맛으로

표현한 전시 <날씨의 맛(Taste of Weather)> 이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다.

이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에서 9월 30일까지 열리며,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첫 번째 테마인 '날씨를 맛보다'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날씨 그대로를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테마인 '날씨에 맛을 더하다'에서는 날씨에서 비롯된 감정, 생각, 사건, 기억을 다룬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날씨를 맛보다'에 속한 작품 중 하나인 <순환하는 소리 2>에 다가가면 '양철지붕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산업화로 인해 이제 양철지붕은 우리의 기억에서나 만날 수 있는 소재가 돼 버렸다. 그래서 작가는 아시아 전역을 돌며 양철지붕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채집했다.

작가는 채집한 소리를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전시장에 양철지붕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그리고 소형 스피커 여러 대를 빗방울처럼, 스피커에 연결된 전선은 빗줄기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빗소리가 나올 때마다 양철지붕 모양이 떨리게 연출해 빗소리를 공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외에도 천둥소리를 다룬 <번서된 소리>, 매주 일요일 하늘을 표현한 <일요일 회화> 등

총 8개 작품이 '날씨를 맛보다' 테마에 포함됐다.

'날씨에 맛을 더하다'에서는 영상 작품인 <무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TV다. TV에서는 비오는 영상과 함께 긴급재난 문자 수신음이 송출되고 있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흘러나온다. 자막은 실제 자연재해 피해자를 심리치료할 때 사용하는 질문지를 토대로 만들었다. 작가는 "당신도 그렇습니까?"라는 자막을 삽입해 폭염·대설·지진과 같은 재난과 관련된 개인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미술관에서 만난 조민희(연세대 1) 학생은 "사고를 직접 겪은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짐작되지 않는다. <무드>를 보고 자연재해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작품 감상 소감을 밝혔다.

두 번째 테마는 <무드> 외에도 미세먼지에 주목한 <에코트론 V2.0>, 핵폭탄 폭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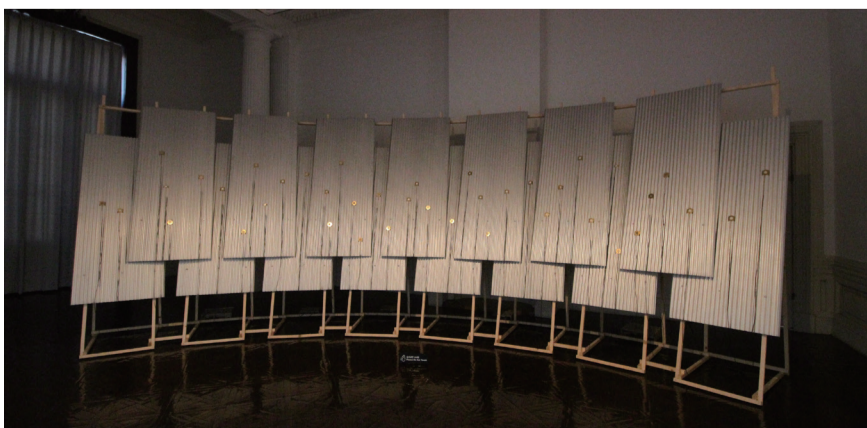
▲임영주 작가의 <무드>

생기는 구름을 표현한 <버섯구름> 등 총 7개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에 대해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날씨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정만영 작가의 <순환하는 소리 2>

넉넉한 마음이 든든한 한 끼로 ‘십시일밥’ 최문영 대표



십시일밥 최문영 대표

수강신청 때 빙글빙글 빠른 속도로 클릭해서 사수해낸 소중한 공감 시간. 이 시간을 누구보다도 의미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십시일밥의 최문영 대표(한국외대 3)와 십시일밥 회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십시일밥은 ‘열 사람이 한 숟씩 보태면 한 사람 몫이 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십시일반(十匙一飯)에서 착안해 결성된 비영리 단체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내 식당에서 일한 뒤, 그 대가로 받은 식권을 취약계층 학우에게 기부하고 있다. 이곳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최 씨는 대학에 입학 후 십시일밥과 인연을 맺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취약계층 초등학교 교육 봉사, 캠페인 동아리 참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대학에 입학

하고 보니 학식 비용을 버겁게 느끼는 어려운 학생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페이스북에서 십시일밥을 알게 됐어요. 식권을 기부해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끌려 바로 연락했어요.”

십시일밥 회원이 돼 활동할 생각으로 들뜬 그녀에게 돌아온 대답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는 십시일밥 지부가 없어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최 대표는 이사직을 맡겠다고 자처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같이 일할 동료들을 모집해 지부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모집한 인원은 총 20명.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준 회원들과 1년을 보내고 최 씨는 십시일밥 사무국에서 활동한 뒤, 작년부터 대표직을 맡고 있다. 십시일밥이 활동하는 21개 학교를

총괄하고 800명의 봉사자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사였을 때와 대표가 된 후에 책임의 무게가 매우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사였을 때는 업무도 인원이 적어서 부담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표가 되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십시일밥은 월급 받고 일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저 좋은 마음에 모여서 일하는 곳이지 않아요. 구성원들에게 돈이 아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제 대답은 ‘좋은 문화를 만들어주자는 거였어요(웃음)’”

최 대표는 사람 중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직원과 소통할 때마다 그녀는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끔 말하려고 신경썼다. 고생하는 이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최 대표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사회적 기업이 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시일밥 대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업무가 생겼어요. 일하고 싶은 조직에 들어가 좋은 문화를 만드는 일이지요.”

최 대표는 회원들과 함께 기부한 식권을 수혜자들이 의미있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차다고 했다. 수혜자들이 밥값을 아껴 평소 염두도 못 냈던 저축을 하고, 카페에서 소소한

사치를 부릴 수 있어 좋아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고도 말했다. 그런 그녀에게 일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지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십시일밥의 이사직을 맡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이 사직도 맡으면 힘들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막상 해보니 힘들지 않더라고요. 십시일밥과 관련된 일은 무엇이든지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워서 쉬는 날에도 식당에 나가 일했어요(웃음)”

인터뷰하는 내내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어릴 적부터 품은 그 마음은 그녀에게 남다른 봉사관을 갖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봉사하면서 제가 배울 때도 많아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인터뷰 내내 그녀가 보여준 것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이였다. 이러한 열의가 오늘날 십시일밥의 대표 최문영을 만들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구성원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녀에게 평소 본인 걱정은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십시일밥에서 일한 지 어느덧 3년 반이 됐어요.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당연히 여기게 될까봐 걱정돼요.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회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앞으로도 잘 지켜내려고요.”

오랜 시간 대표로 일해시일까. 그녀는 십시일밥 대표로서의 바람도 빠트리지 않고 이야기했다.

“대중이 청년 빈곤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대학생들이 아직 많거든요. 봉사자분들도 자신이 하는 활동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알고,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십시일밥을 향한 그녀의 애정이 가난한 청년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길 기대해본다.

이기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사진 제공: 십시일밥

FOOD TICKET



“바르지 마세요, 종이에 양보하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미술을 전공한 김미승(24) 씨는 항상 예술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은 대학에서 성적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SNS에 개인의 개성을 표현한 작품이 자유롭게 올라오더라고요. 저 역시 제 개성을 담은 작품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별한 소재를 찾다가 액자가 가는 재료인 화장품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본격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때는 2014년 늦은 겨울이었지만, 그녀의 첫 작품은 사실상

고등학교 시절에 완성됐다.

“고등학교 때 아크릴물감으로 인물을 표현해야 했는데, 피부 표현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물감 대신 가방에 있던 비비크림 샘플을 뜯어 피부를 표현해봤어요. 생각보다 만족스럽더라고요. 화장품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로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 그녀는 작품을 그릴 때 아이세도는 파스텔 처럼, 틴트는 수채화물감처럼, 매니큐어는 아크릴물감처럼 사용했다. 그녀는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골라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제가 원하는 재료를 찾아 사용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저만의 색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색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탐색해나가는 시간이 재미있더라고요. 저만의 개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웃음).”

화장품으로 인물화를 그리는 과정은 실제 메이크업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필로 그린 스케치 위에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를 깔고, 섀딩과 하이라이터, 블러셔로 얼굴 윤곽을 잡는다. 그녀는 화장 도구를 미술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넓은 면적을 손으로, 좁은 면적은 면봉으로, 세심한 묘사가 필요한 부분은 네일아트 브러시나 메이크업 브러시를 사용해 표현한다.

“저는 펠이 들어간 화장품을 많이 사용해요. 펠이 많이 들어갈수록 오토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림을 비추는 조명에 따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그림을 보는 사람은 색다른 느낌을 받아요. 그림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처음에는 사촌 언니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을 받아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기업이나 은퇴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에게 폐화장품을 보내온다. 아직 사용해보지도 못한 화장품이 그녀의 방 한편에 수도룩한 이유다.

자신의 작품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으로 화장품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녀는 몇 차례의 전시회를 통해 이제 어엿한 작가로 인정받았다. 얼마 전부터는 화장품 드로잉 강좌를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예술 행위를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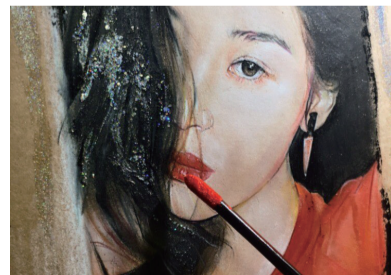
“화장품을 활용해 그린 그림이 점점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개척한 분야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다 보면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 감정도 떠오르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더 강해져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누구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림에 제 감정을 풀어내고 싶어요”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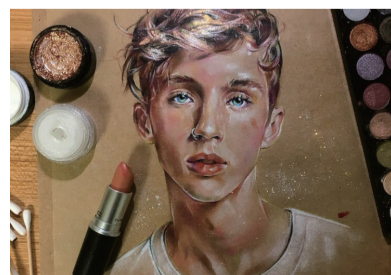
“지금은 화장품을 사용해 꽃이나 인물, 좋아하는 장면 등을 그리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 도전할지는 꾸준히 생각 중이에요.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위한 그림을 그려서 관련 봉사단체에 기부해 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그리고 싶거든요.”



▲김미승 작가의 작업 공간. 거실 한편을 작업실로 사용 중이다.



▲그녀가 화장품을 사용해 그린 선미



▲그녀가 작업한 트로이 시반. 펠을 많이 사용해 오묘한 느낌을 준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짊기가 된 대기, 짊이 되는 지구

지난 8월 1일, 서울의 기온은 섭씨 39.6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날 홍천은 41도를 넘는 살인적인 폭염에 몸살을 앓았다. 말복이 지나도 폭염은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몰랐고, 111년만에 8월 중순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무더위는 더더욱 기승을 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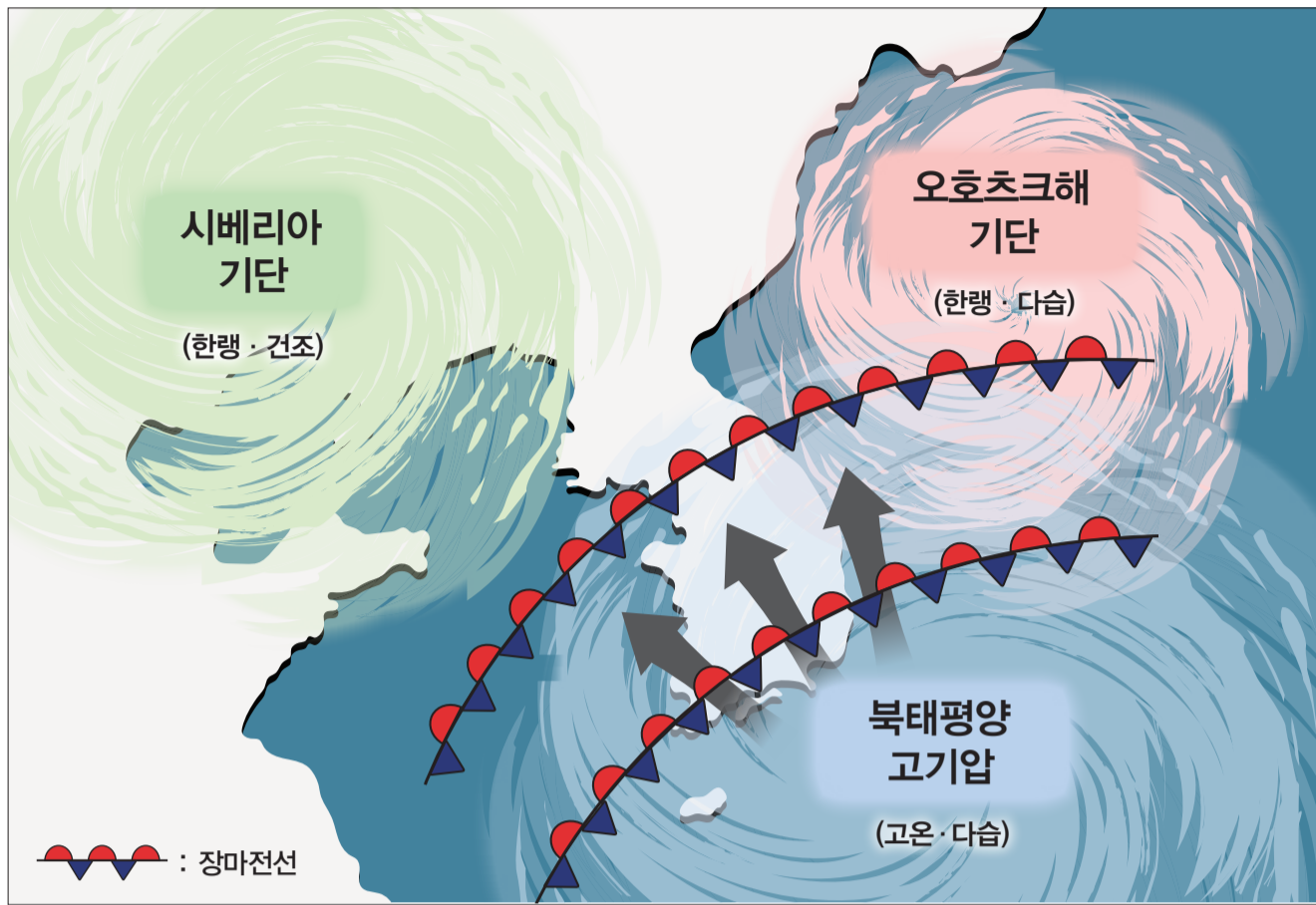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통받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애리조나주(州)는 기온이 45도 가까이 올라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극지방과 가까운 스칸디나비아반도 역시 이상고온 현상을 피해갈 수 없었다. 15~20도를 맴돌던 여름 기온이 올해는 30도까지 상승한 것이다.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고온 현상은 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현상'을 꼽았다. 열돔현상은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지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오재호(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알프스산맥이나 로키산맥 등의 적설량이 열돔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적설량이 많으면 햇빛을 반사해 지면의 가열을 막아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면이 햇빛에 가열돼 공기의 가열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산맥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적설량이 적으면 고기압이 비교적 쉽게 형성된다. 이때 고기압이 하강하면서 열돔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무더위도 이와 관련이 있다. 기상청은 폭염의 원인 중 하나로 티베트 고기압의 발달을 꼽았다. 티베트 고원은 여름이 되면 강렬한 햇빛으로 달아올라, 같은 고도의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매우 높아진다.



▲여름철 동서로 확장된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면 두 기단의 습한 성질로 인해 경계선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집중호우가 내린다. 이렇게 형성된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 북상한다.

이때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대기권 상층에 고기압이 뚜렷해지는데, 이를 티베트 고기압이라 부른다. 올해는 티베트 고원의 적설량이 적어 티베트 고기압이 더 빨리 형성됐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하강하면서 열돔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기단 싸움에 등 터진 한반도

폭염의 또 다른 원인으로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으로 인한 장마 단축을 언급했다. 이는 장마전선의 형성 원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장마전선은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면서

형성된다. 오호츠크해 기단은 오호츠크해의 수온이 주위보다 낮을 때 만들어지는데, 초여름에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약화되면 동서로 길게 확장된다. 이때 오호츠크해 기단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만나면 두 기단의 경계선에는 장마전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장마전선은 두 기단의 세력 싸움에 따라 이동하는데, 장마전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가 크게 달라진다. 오호츠크해 기단 세력이 북태평양 고기압보다 더 강하면 장마전선이 남하하고, 우리나라는 한랭다습한 오호츠크해 기단의 영향을 받아 이슬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진다. 반면, 북태

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오호츠크해 기단보다 강해져 장마전선이 북상하면 한반도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게 돼 열대야와 무더위가 시작된다.

빙하기와 간빙기의 순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는 지구가 빙하기로 뒤덮이는 빙하기와 빙하가 녹는 간빙기를 반복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화석연료에 이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집단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빙하기와 간빙기의 순환'을 언급하기도 한다. 현재 지구가 간빙기에 진입하는 단계라 고온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빙하기와 간빙기의 순환은 수백만, 수천만 년에 걸쳐 일어나는 아주 긴 시간의 변화다.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난 이상기온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기온 현상이 산업혁명 이후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구를 망치는 인간의 욕심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7년에 교토의 정서를 체결하고, 2015년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두 협약 모두 여러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탈퇴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까지 낮추기로 한 파리기후협약에서의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5% 미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1인당 26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 뒤인 2050년까지 2톤으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위인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면서 평균기온이 예상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21세기 내에 지구 생물종의 30%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30%에 인류가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간의 이기가 이상기온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지금,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눈앞의 이익과 미래를 맞바꾸는 어리석은 실수를 할 것인가.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속속 상용화되고 있다. 지문, 홍채, 정맥 등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이용한 산업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중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있는 생체인식(Biometrics) 기술은 기존 비밀번호를

대체할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생체인식 기술 중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방식은 지문인식이다. 최근 생체정보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로는 '홍채인식'이 있는데, 원거리에서 비접촉식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지문인식보다 편리하다. 또한, 홍채 패턴은 지문 패턴에 비해 더욱 정교해서 개인 식별 정확도가 더 향상되는 데다 위·변조도 어렵다.

장점이 많은 기술이지만 단점도 있다. 카메라로 홍채 패턴을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카메라 렌즈 상태, 주변 밝기, 안경 및 렌즈 착용 여부 등에 따라 홍채 인식의 정확도가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항식(전남대학교 의공학과) 교수는 "외부요인에 의한 잡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보완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이외에 정맥인식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정맥인식 기술이란 손에 뻗어 있는 정맥 형태를 인식하는 기술로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보다 인식 보안성이 높고 오차율이

적어 주로 금융이나 신용거래 분야에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손금의 무늬인 장문(Pamprint), 걸음걸이, 심전도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식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신 교수는 "수많은 연구진이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연구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인식 기술들이 워낙 편리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완성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대체할 목적이 아니라, 의료나 검역처럼 특정 분야에서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인식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안면 인식을 통해 감염자를 식별하거나, 원격 진료를 할 때도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든 기술에는 맹점이 있기 마련. 보안과 편리성을 위해 개발된 생체인식 기술이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이 사생활 침해라는 역설적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신 교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기술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돼 온 열쇠, 비밀번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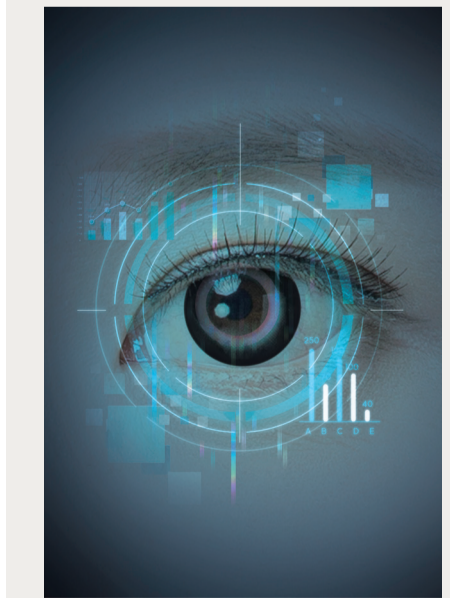


분실·유출되기가 매우 쉽고, 일단 유출되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될 수 있다. 생체정보는 태생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으므로 유출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생체인식 시스템 운용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은 홍채 등 생체인식 기반 간편 공인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생체인식의 암호화 등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홍채는 저마다의 고유 형태를 가지고 있다. 홍채는 생후 18개월 이후 완성된 뒤, 평생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이 사람을 식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삼 학 송

여름방학을 되돌아보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짧은 2개월간의 여름방학도 어느덧 과거형이 됐다. 개강을 맞이하는 대학생들이 그러하듯, 나 또한 아쉬우면서 허탈한 감정을 느낀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자책과 회의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찰나,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까 나, 일도 했고 자전거도 뒀잖아?'

이번 방학의 8할을 차지한 일과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학보사 업무였다.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성대신문>은 정비 시간을 가졌다. 편집국장이 교체되는 것은 마치 국가의 정권이 바뀌듯,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다르게 말하면 기자들은 기존에 고수해왔던 방식을 버리거나 개선해 새로운 체제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감 체제 개혁이다. 내가 수습기자이던 시절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감이라 하면 레이아웃 마감, 초고 마감, 기사 마감 등 3단계 마감 일정이 전부였다. 그러나 기자들의 잦은 업무지연으로 언제부터인가 마감일이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촉박하게 진행된 취재와 기사 작성은 반드시 미끄러지게 돼 있는 벌. 좀 더 체계적인 마감 일정을 수립할 필요를 느꼈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6단계 마감 일정이다. 기존 마감 일정에 콘텐츠 마감, 인터뷰 마감, 사진 마감을 추가해 세분화한 것이다. 새로운 마감 체제의 효과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물론, 이처럼 갑작스러운 체제 변화가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란스러울 만도 하다. 기자들끼리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오해가 쌓이며 벌어진 해프닝도

있었다. 편집국장으로서 내가 나서 옹호하고 옹호의 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쇠뿔도 단김에 빠라하지 않던가. 서둘러 면담 일정을 잡고 기자 한 명당 약 30분씩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먼 옛날 황희 정승이 한 말처럼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생 처음 내담자가 아닌 면담자가 되어 1:1 면담을 진행한 후문이다.

방학 내내 지겹도록 일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 짬을 내, 어릴 때 미처 배우지 못했던 자전거 타는 법을 익혔다. 처음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밟고는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동안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땅에서 발을 떼는 순간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것만 같았다. 페달을 굴러보기도 전에 넘어져 생길 생체기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그런데 긴장을 풀고, 핸들을 잡은 두 손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페달을 구르자 자전거가 조금씩,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조금은 비틀거리고 때때로 넘어질 듯 기울기도 했지만 분명한 건 자전거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탄력이 붙고 나서는 나름의 기교도 부릴 줄 알게 됐다.

편집국장이라는 자리도 어쩌면 자전거 타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내 힘으로 조직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두렵지만, 조금 미숙해도 어떤가. 마음을 가득 채운 부담은 조금 덜어내고 즐긴다는 마음으로 발을 굴러다보면, 전진하다가 어느 순간 내 역량을 펼치고 있지 않을까.

강예림 편집국장

한성포토저널

말 많던 학생들은 어디에...?



8월 13일, 24일에 진행된 한성인재장학금 관련 총학생회 간담회. 양일 모두 학생들의 참여는 전혀 없었다. 총학생회장은 방학임을 고려해 SNS로 한성인재장학금 관련 의견을 받기도 했지만, 채 10건이 되지 않았다. 과연 말 많던 학생들은 어디로 갔는지... 김중민 기자

의화정

올해 초 제주도에서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대거 난민 신청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난민 문제가 일반인들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됐다. 난민 수용 찬성자와 반대자들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고, 청와대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원' 청원도 올라왔다. 청와대를 향한 난민 문제 국민청원에는 8월 1일 정부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올릴 때까지 무려 714,875명이 동참했다.

수용 반대파는 이번 난민사태가 정부의 개방적인 출입국정책과 난민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난민정책의 방향

제주 예멘인 난민 사태 이해하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 무사증 제도가 가짜난민 입국 통로이므로 폐지해야 하고, 정부가 난민협약을 탈퇴하고 난민법을 폐지해 난민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민을 수용하더라도 난민 신청을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해 가짜난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수용 찬성파는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히 분담해야 할 국제적 책무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한다. 또,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난민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 등을 통한 난민 수용 거부가 한국의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및 고립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익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제주 예멘인 난민 사태가 한국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숙한 인권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진정한 보편인권을 다루는 난민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 이에 힘입어 향후 국내 학계에서 연구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제주 예멘인 난민 사태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 발전과정의 주요 변곡점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다.

오정은(이민·다문화트랙) 교수

낙산세컷_방학동안_학교는...

김수현(인문 2)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교내 치한 출몰



단과대학별 학과사무실 합체

기자수첩

지난 23일, 우리나라는 태풍 '솔릭'으로 한바탕 떠들썩했다. 수도권을 강타할 것이란 당초 기상청의 예측과는 달리, 솔릭은 제주도 상륙 이후 강도가 약해지면서 별 탈 없이 한반도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솔릭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고 갔다. 큰 말썽 없이 태풍이 지나가서 다행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과잉 대응으로 인한 '설레발'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별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마치 재앙이 닥칠 것처럼 다룬 바람에 오히려 손해 봤다는 것이다. 심지어 폭염을 물리칠 강력한 태풍을 기대했는데 너무 조용히 지나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당장 재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간의 대비 과정을 '시간 낭비'로

치부해버렸다.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다.

사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대전의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한 대학생이 작업 도중 숨졌다. 그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중 감전돼 변을 당했다. 택배회사가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슈가 됐다.

지난 1월,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도 마찬가지다. 병원 건물에는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화재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약 10분 동안 울렸음에도, 이를 오작동으로 생각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도 화근이었다.

안전 불감증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도 녹아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특히 학교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스몸비'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해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사고는 반드시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기는 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다. 익숙함에 속아 위험에 대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때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낙산에 올라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나는 강의실에 도착했다. 나는 먼저 도착해있던 사람을 향해 눈을 대구루루, 앞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 눈을 대구루루, 교수님이 언제 오실까 복도를 향해 눈을 대구루루. 아마 내 몸의 기관 중 가장 피곤하게 일하는 것은 바로 눈일 것이다.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남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신조어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년씨눈(년 x발 눈치도 없나)'이나 '낄까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같은 단어들. 이 두 단어는 눈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비난할 때 쓰이곤 한다. 나 역시 학창시절을 보내며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왔다.

미어캣이 아닌 온전한 '나'

그러는 사이 천진난만하고 당당했던 14살의 나는, 어느새 눈치 보기에 바쁜 19살의 내가 돼버렸다.

이는 스무 살이 넘어서도 다들 바 없었다. 하루하루 눈을 굴리기에 바빴고, 눈과 마음은 점점 피곤해져 갔다. 나는 교내 상담센터에 찾아가 상담 선생님과 이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선생님은 한 동물의 이야기를 하셨다. '미어캣'. 흔히 '미어캣'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두 발로 땅에 서서 콧맛이 몸을 세운 채, 길게 목을 내밀고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 선생님은 나의 모습이 미어캣 같다고 하셨다. 이 이야기는 비단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한 무리의 미어캣과 같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뒤쳐지지 않는 것에 몰두하는 사이,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남들과 똑같은 미어캣이 돼 타인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본연의 성격을 숨기고 자신을 죽인다. 그리고 먼저 미어캣이 된 사람은 아직 미어캣이 되지 않은 자를 비난하며 또 한 마리의 미어캣을 만든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나'를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자. 눈치를 강요하지도 말자. 그것이 온전한 '나'를 만드는 첫걸음일 것이다.

심재영(인문 2)



플라스틱 라이프 OFF 판타스틱 라이프 ON

〈편집자주〉

최근 SNS에서 '플라스틱 프리(Free)'가 뜨거운 감자다. 쇼핑할 때 장바구니를 들거나 머그잔에 커피를 마시는 등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프리를 실천하고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처럼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프리에 동참하고 있는 한편, 사회에서도 플라스틱 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환경시민단체, 환경공무원 등이다. 분야는 달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며 플라스틱 프리 세상을 함께 꿈꾸는 사람들. 〈한성대신문〉이 그들을 만났다.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과 전쟁 중

얼마 전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비닐봉지 80여 장이 나온 사진이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2015년에는 바다거북이 콧속에 빨대가 박힌 채 구조된 사례가 SNS에 확산돼 논란이 빚어졌고, 올해 5월에는 알바트로스와 바다스새가 먹이 단서인 황화합물 냄새를 맡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섭취해 고통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다시 한번 논란이 됐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생태계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플라스틱 대체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중 과일 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석세포는 천연 화장품과 천연 치약에 활용할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버섯으로 만든 와인 포장재 ▲해초로 만든 물병 ▲거미줄 신발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하려는 개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연구도 진행 중

이다. 최근 영국과 스페인의 합동 연구진은 폴리에틸렌 소재의 비닐봉지를 먹어 치우는 나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분해 능력이 있는 박테리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던 제품을 재사용 가능한 실리콘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eeeek사(社)의 이광택 대표는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태계를 위해 작은 귀찮음은 즐겁게 감수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신음진(인천녹색연합) 활동가는 "우선 요구되는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정책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프로 거리는 보란 듯이 바뀌지 않았다

새벽 3시.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하나로 거리의 새벽은 한산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한 사람, 바로 환경공무원 김 씨다. 그는 사무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은 뒤, 수레를 끌며 그의 일터인 거리로 향했다.

4시부터 시작되는 청소 작업. 거리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가게들 앞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별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골목의 캄캄한 어둠 속에 쓰레기 더미가 시체처럼 웅크리고 있는 광경은 스산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길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는 표지가 붙어있었고, 스피커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중'이라는 안내방송이 20초 간격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 속에서 김 씨는 비질을 시작했다.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청소 작업을 하는지 묻자, 김 씨는 "상점들이 아침 8시~9시 문을 열기 때문"이라며 "그전까지 미리 청소를 해놓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우선 일회용 플라스틱 컵 같은 비교적 큰 쓰레기부터 줍기 시작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집게로 들어 올리자 컵 안의 내용물이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 일회용 컵 수거는 한두 개로 그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제법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였다. 김 씨는 음료수 병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쉴 새 없이 집어들며 "이런 쓰레기는 70~80%가 내용물이 차있는 것들"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일회용 컵 안의 내용물을 비우다가 작업복에 묻는 일도 다반사라고 했다. 여름에는 컵 안에 담긴 내용물이 뒤섞여 부패하는 일이 많고, 이 때문에 눈살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하나로 거리

찌푸러질 정도의 악취를 참아가며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다회용 컵, 텀블러를 사용하라는 정부의 지침은 이 광경 앞에서 신기무일 뿐이었다. 정부가 '자원재활용법' 같은 관련 법규를 만들어도 거리는 여전히 일회용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으니 말이다.

오전 8시. 청소 작업을 마친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일터를 떠났다. 김 씨가 동선동 하나로 거리 일대를 청소하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 주말에는 쓰레기 양이 월등히 많아 길게는 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거리가 바뀌지 않는 한 그의 일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는 이 청소 작업을 내일도, 모레도 매일 같이 반복할 것이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700만 톤... 그 답은 자원순환?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자원은 특정 제품으로 생산되고 판매·사용·폐기된 후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다. 일련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순환과정을 거스르는 자원이 있으니, 바로 플라스틱이다. 그래서다.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이 자연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남자가 연구소를 차린 이유 말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10년간 활동하다가 개인 연구소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남자,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Q.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A. 자원순환과 관련해 교육을 하고 정책 연구, 현장 조사 등을 한다. 폐기물이 발생하는 장소가 워낙 다양해서 업무 현장도

광범위하다.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재질별로 분류하는 업체에 방문해 자원순환 실태를 살피기도 한다.

Q. 자원순환이 왜 중요한가?

A. 소각이나 매립만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역부족이다. 하물며 소각장과 매립장을 계속해서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지만, 소각이나 매립하면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 자원을 순환시켜야 한다.

Q. 우리나라 플라스틱 자원순환의 현황은?

A.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700만 톤이다. 이 중 재사용·재활용되는 비율은 고작 30%다. 나머지는 전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매립은 여러 쓰레기 처리 방식 중 환경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다. 지하수 오염을 유발해 해양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Q. 플라스틱을 대체할 자원이 있다면?

A. 대체 자원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플라스틱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포장지'다. 빵·과자 봉지가 대표적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면 포장지 사용량부터 줄여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차선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머그잔이나 유리잔, 다회용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플라스틱 컵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하자는 취지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